

광주시 올 최고 정책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

시민·전문가 330명 평가
친환경자원회수시설 2위
돌봄으로 고독사 없는 광주 3위
체감도 높은 정책 '베스트 10' 선정

광주시민들이 올해 광주를 빛낸 최고 정책으로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선택했다.

광주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 330명의 평가를 통해 15개 우수 정책 중 베스트 정책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평가에선 공공보건의료과의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최종 1위에 올랐으며,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친환경자원회수시설(소각)', 돌봄정책과의 "꼭꼭!! 안녕하세요" 사회관계 돌봄으로 만드는 고독사 없는 광주'가 각각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경제정책과의 '부담은 덜고, 매출은 늘리고, 지역경제는 살리는 광주상생카드', 도로과의 '제2순환도로,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합니다'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날 경진대회는 발표부서와 시민 평가단, 전문가 평가단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 직후 전자투표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장 심사가 이뤄졌으며, 사전평가 점수와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



고광원(가운데)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에 참석해 '올해의 베스트 10' 정책을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우수정책 선정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기존 연말에 1회 실시하던 베스트 정책 선정을 연중 지속해 시민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15개 후보정책도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ON을 통한 시민 설문조사, 5월 개최된 시민의 날 현장평가, 10-11월 지역사회리더 설문조사 등 시민에게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 선정된 정책이다.

이날 전문가 평가단으로 참여한 설선미 호남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시민, 공공, 민간의 영역이 지역 현안을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로컬거버넌스의 가치를 느끼게 됐다"며 "각 부서 실효성 있는 정책

은 협력의 결실들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분들의 광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앞으로 광주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총평했다.

시민 평가단으로 참여한 한 시민도 평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던 정책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니 이해도 쉽고 광주가 얼마나 더 멋지게 바뀌지 기대 된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날 선정된 10개 우수정책에 대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민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시민과 전문가의 공정한 선택을 통해 스타정책으로 뽑힌 정책에 대해 많은 박수를 보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 1년 평균 책 6.4권 읽는다

전국 평균 7.2권보다 낮아...74%는 도서관 이용 경험 없어

광주 시민들이 1년 평균 6.4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광주연구원 이 발간한 '광주 도서관·독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 수는 6.4권, 독서인구(1년 동안 독서를 한 적이 있는 사람) 1인당 12.4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구 1인당 7.2권, 독서인구 1인당 14.8권)보다 낮은 수치다.

독서량은 독서인구 기준 10년 전 2013년 17.1권, 2015년 15.5권, 2017년 16.3권, 2019년 14.2권, 2021년 14권으로 감소 추세다.

독서 선호도는 '보통이다'는 답변이 47.8%로 가장 많았고, 약간 싫어한다 28.8%, 매우 싫어한다 5.6% 등이었다. 독서 빈도는 몇 달에 한번(19.4%), 한 달에 한두 번(18.7%), 일주일에 한두 번(17.1%) 순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독서 시간은 평일 14.3분(종이책), 휴일 26.7분이며, 장소는 집이 79%로 가장 많았다. 종이책 구입처는 대형서점(오프라인) 38.5%, 인터넷 서점 32.5%, 소형서점 5.3%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수는 362개이며, 74.6%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49개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117개, 서구 83개, 남구 74개, 동구 39개 순이었다. 김광욱 선임연구원은 "독서량 감소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독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14차례 사전 행사를 열어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관심 있는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투자자가 실무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최의 광주시 경제창업육성장은 "일회성 전시행사를 탈피하기 위해 사전에 창업기업과 대기업, 투자자 간 매칭 행사를 지속 개최했다"며 "앞으로 창업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 실증을 위한 포용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창업페스티벌, 520억 투자유치 성과

광주시는 "지난 11월 28~29일 개최한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에서 53개 사 52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베슬에이아이는 에이벤처스 등 투자자와 15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또 스페이스비전에이아이·바인벤처스 등은 40억

원 투자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디지털 광고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씨아이에스케이·에스티에이치·리셀 등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322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사전 투자 매칭, 대기업 개방형 혁신전략 전시관 등 사전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협업모델 발굴 역량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월엔 달콤한 디저트가 있는 전남 관광

해남 고구마빵·영암 무화과샌드·담양 죽순빵·구례 밀빵

도, 이달의 추천관광지 선정

전남도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해남, 영암, 담양, 구례를 12월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영암 무화과샌드는 영암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에 버터크림으로 속을 채운 이색 디저트다. 영암은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전국에서도 품질이 뛰어난 무화과 생산지로 유명하다.

영암에서는 무화과 본연의 단맛을 살린 무화과 스콘, 무화과 허니브레드, 무화과파스타 등 맛있는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또 넓은 영암호 위를 건너는 솔라시도대교, 영암의 도기문화 역사를 체험할 영암도기박물관, 레이싱 드라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암국제카트 경기장 등 역사부터 문화 자연 등 다채로운 여행지가 매력적이다.

해남 고구마빵은 해남에서 생산한 고구마와 해남쌀을 이용해 만들었다. 해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전국에서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구마 생산지다. 고구마빵 양극에는 고구마 외에 어떤 첨가물도 더하지 않아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좋다. 타르트, 피낭시에 등 맛보며 해남 고구마의 매력을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다.

해남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내륙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탁트인 바다 풍경이 아름답다. 두륜산 정상까지 탐방하는 두륜산

케이בל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기념하는 우수영관광단지,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평강마을에서 해남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담양 현미 죽순빵은 담양의 특산물인 죽순을 다져넣고 현미로 반죽해 고소한 풍미와 함께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대나무 케이크, 죽순 귀리 파이 등 다양한 대나무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오는 24-25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담양산타축제'가 열린다. 산타페어이드, 야경 포토존 등을 즐기며 낭만적 연말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사계절 내내 푸르른 대나무 숲 죽순원, 조선시대 조성된 숲 관광장, 조선시대 가사문학을 배울 수 있는 가사문학관, 한국 전통 정원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소쇄원 등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가 많다.

구례 밀빵은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빵이다. 구례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산물로 유명하다.

특히 구례에서 재배된 밀은 품이가 깊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화학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살린 건강한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자락의 통일산라 사찰 화엄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천은사 상생의 길, 다양한 식물과 천연기념물 수달에 대해 알아보는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등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명소들이 즐비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여수산단에서 현장 간담회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재편 대책 등 논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산단 석유화학 위기...지역경제에도 빨간불' (광주일보 12월 4일자 1면) 과 관련, 5일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을 찾아 석유화학산업의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친환경·고부가 산업 재편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여천NCC, GS칼텍스(주), LG화학, 롯데케미칼(주), 한화솔루션(주), 삼남석유화학(주), 재원산업(주) 등 석유화학 기업인과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영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화학단지인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전남 경제성장의 핵심이지만 최근 수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여수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의 사업 재편을 위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지원 등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지역 역량을 결집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문선 회장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하와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조병만 여천NCC 공장장은 "화학공장의 안전과 환경규제를 위기 대응 기간 동안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날 13일 '여수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9개 사업과 5조 6480억원의 투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